





(39쪽을 보여주며) 야곱과 열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야곱은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을 무척 사랑했어요.



(‘채색옷을 입은 요셉’을 야곱 옆에 놓으며, 중후한 목소리로) “내 귀한 아들 요셉아!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주었어요. 채색옷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는 표시
였어요. 채색옷을 입은 요셉은 날아갈 듯이 기뻐했어요.

(‘채색옷을 입은 요셉’을 흔들며,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 정말 멋진 옷이에요. 감사
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형들을 가리키며)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형들은 기분이 좋
지 않았어요.

(화난 목소리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서 다 받고 있어! 저 녀석 마음에
안 들어!”

(심술부리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말이야!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멋진 채색옷을 주
셨어! 요셉이 너무 미워!”

형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요셉을 미워했어요.





(가림막으로 40쪽의 ‘해·달·별’ 꿈을 가리고, ‘곡식 단’ 꿈을 보여주며) 어느 날, 요셉이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꾸은 꿈을 자랑했어요.

“형님들, 제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들의 곡식 단이 제 곡식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지 뭐예요!”

(화난 목소리로)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요셉의 말을 듣고 화가 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어요.



(가림막으로 40쪽의 ‘곡식 단’ 꿈을 가리고, ‘해·달·별’ 꿈을 보여주며) 요셉은 또 꿈을 꾸었어요.

(‘채색옷을 입은 요셉’을 ‘해·달·별’ 꿈 가운데에 놓고 흔들며) “아버지! 형님들! 제가 또 꿈을 꾸었어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제게 절을 하지 뭐예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어요.

(화난 목소리로) “나와 네 어머니, 형들이 네게 절을 한다는 말이나?”



(‘채색옷을 입은 요셉’을 ‘해·달·별’ 꿈 가운데에 놓은 채 40쪽 전체를 보여주고,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요셉이 꾸은 꿈은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어요.

가림막 활용 방법







(41쪽을 보여주며)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먼 곳으로 갔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러 떠났어요.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구덩이를 가리키며) “우리 저 미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 속으로 던져 버렸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저 좀 꺼내주세요.”

요셉이 울며 소리쳤지만, 형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불쌍한 요셉은 그 사람들과 함께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은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 말씀마당 14과
<이스라엘 이름표>

◀ 말씀마당 12과 <에서>



◀ 말씀마당 12과 <아굽>



▼ 말씀마당 15과
<채색옷을 입은 요셉>

